

금강대 소식

2014 GGU Newsletter

Vol.04



GeumGang University

기획특집
주요뉴스
금강人 세계in
대학소식
교육/연구
발전기금

금강대 소식

2014 GGU Newsletter

Vol.04



CONTENTS

THEME · 기획특집

- 04 21명의 미국 라이프 들여다보기
- 05 COOL한 여름, 캐나다에서의 5주
- 06 해외봉사 3기, 캄보디아로 간 30명의 산타들
- 07 따로 또 같이, 네팔에서의 14박 16일

SPOTLIGHT · 주요뉴스

- 08 지역인재추천채용(6, 7급 공무원) 최다 배출
- 08 2014년도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순항
- 08 2014년 행정고시 1차 시험 합격자 8명!!
- 09 제1회 선도대학 대학총장에 정병조 총장 선정
- 09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지원사업(상반기)에 4명 선정

FRONTIER · 금강대 세계 in

- 10 김세연, 박경현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합격
- 10 남이현 공무원과 공단 모두 합격
- 10 박익후, 중국정부초청장학금 유학생 선발
- 11 주인원, 일본어 교육 박사학위 취득
- 11 임대홍, 삼성 호텔신라 입사
- 11 김선기, 금융을 넘어 (주)루트제이드 해외영업업무까지

FOCUS · 대학소식

[학술교류]

- 12 파키스탄 콰이드이아잠(Quaid-i-Azam)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 12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 보이시 주립대학 교류협약 체결 순항
- 12 캐나다 UNBC, 싱가포르 TMC Academ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캠프]

- 13 자연과 함께하는 논산시 청소년 FunFun 영어캠프 개최
- 13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서울투어문화체험 & 진로캠프 개최

[소식]

- 14 금강대 졸업생 국·내외 명문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
- 14 금강대 총학생회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추모제 열어
- 14 금강대 교육방송국(GBS) 환경UCC공모전 대상 수상

ISSUE · 교육 / 연구

- 15 정병조 총장 선도대학 대학총장 우수사례 발표
- 15 금강대,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행복공감아카데미 개최
- 15 예비 금강인을 위한 전공비전 및 진로 설명회 개최
- 16 불교문화연구소 제6회 산스크리트어 강좌 성황리 종료
- 16 개인별 맞춤형 취업/진로 지도 프로젝트 순항
- 16 중국 섬서사범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 17 불성(佛性)은 영성(靈性)인가? 공동학술대회 개최
- 17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충재 건설청장 초청 특강
- 17 장상교 졸업생 소설보다 재미있는 '도교대학 불교학' 서적 출간
- 18 불교문화연구소 제19회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회 개최
- 18 세계 속의 한국문화 주제로 금강아카데미 개최
- 18 제3회 한·중·일 3국 공동 불교학술대회 개최

TOMORROW · 발전기금

- 19 발전기금안내
- 20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

SPECIAL INTERVIEW

금강대 정병조 총장



올해로 개교 12주년을 맞는 금강대학교,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외파속에서 '강소 대학' 의 위상을 인정받도록 만든 정병조 총장
또한 최근 대학경영연구소(민간단체)에서 제1회 선도대학 대학총장에 선정된 그에게 금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지난 2월 제1회 선도대학 대학총장에 선정 되셨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우리 금강대학교가 '인문학 특성화'를 내세워 차별화된 전략이 돋보인 점, 경영능력과 취업 등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점, 학문연구와 같은 대학본연의 모습이 적절히 반영된 비전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대학에 능력 있는 경영자들 인데 그중에서 우리 금강대가 당연히 우수사례로 뽑혀 선정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 깊고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2. 금강대학교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장학제도와 시설 등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자랑 좀 해 주시죠?

금강대학교는 장학금 학생1인당 824만원 '전국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지원합니다. 주요장학제도는 신입생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 우수 졸업생 장학제도, 해외봉사활동 전액 장학 지원, 해외어학연수 장학 지원, 고급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 각종 전공 관련 국가 자격증반 장학 지원이 있습니다.

3. 금강대는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금강대학교의 운영 방안 궁금합니다.

우리 금강대학교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설립한 종립대학으로서 짧은 대학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적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정부의 인문한국 연구 사업에 전국 200여개 대학 중에서 13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우리 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제출한 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10년 동안 8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세계를 놀라게 한 금강대학교-하버드 대학교간 동양학총서 첫 공동출판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2013년 9월에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한국(HK)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앞으로 금강대학교는 금강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특화 교육과 불교문화 연구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압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신설대학, 소규모대학, 지방대학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교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외국어 특화교육, 기숙사 제공, 타 대학과 차별화 된 교육환경으로 '적지만 강한 명문대학', '소수정예 교육의 전당'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총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1명의 미국 라이프 들여다보기

금강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및 보이시 대학교와 교류협약체결을 맺은 후, 동계 방학 중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과 더불어 약 400만원의 높은 장학금 지원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이끈 이번 어학연수는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다. 미국으로 떠난 21명의 금강인들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먼로캠퍼스 (University of Louisiana Monroe: ULM)에서 총 7주를 보내며 ESL수업을 듣고 미국 문화 체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수업

수업은 크게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오전에는 문법(Grammar)과 쓰기(writing), 읽기(Reading)수업 / 오후에는 말하기(Speaking) 수업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업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개인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수업 외의 시간

▶ Activity center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종 운동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운동도구를 쉽게 대여할 수도 있었다. 각종 운동기구들과 샤워실도 잘 갖춰져 있고 바로 옆에 수영장도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한다.

▶ Japanese class / 바이블 스터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일본어 클래스와 바이블 스터디. 일본어 수업은 매주 금요일 날, 일본어를 영어로 배울 수 있다. 외국인 친구가 가르쳐주고 함께 일본어로 대화를 하며 일본어를 연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에도 좋았다.

문화 체험

▶ Louisiana School for Math, Science, and the Arts (LSMSA)

Louisiana School for Math, Science and the Arts 학교는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해 있고 수학, 과학, 미술을 위한 특목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몇 년 전 Newsweek 선정 미국 고등학교 순위 21위까지 링크한 수준 높은 학교이기도 하다. 미국의 수업이나 학교 분위기, 수업 진행 등을 직접 체험하며 미국과 우리나라 문화 차이를 비교해 본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먼로캠퍼스에 공부하고 있는 GGU 학생들과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마디그라 축제를 즐기러 함께 뉴올리언스에 여행을 갔다. 마디그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페레이드를 보며 미국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COOL한 여름, 캐나다에서의 5주!

우리 대학교는 올해 6월 영어권 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캐나다 UNBC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수업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여학연수를 가기로 한 학우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보고, 시험결과에 따라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들었다. 원래 UNBC에서는 level 5·10·20·30·40·50 총 6개 반이 있었으나 방학인 관계로 level 30·40·50 총 3반만 열렸고, 우리 학우들은 level 30, level 40 두 반에서 공부했다.

수업은 주로 글쓰기나 문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수업시간에 학우들은 스스로가 정한 주제로 과제,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등의 활동을 했다. 일본인, 중국인, 아랍인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서 여러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홈스테이

홈스테이가 진행된 곳은 주로 학교 근처에 위치한 가정집이었다. 학우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캐나다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대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근처에 있는 산이나 강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였다. 또 한국과 관련된 선물하기,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우들이 단순히 캐나다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문화를 캐나다에 전파하여 서로의 문화에 대해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화 체험

▶ 밴쿠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힘이 들 때면 stanley park에서 돛 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했다.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며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서 평화로운 오후의 여유를 만끽했다.

▶ 퀘벡

캐나다 속의 '작은 프랑스' 라는 말을 증명하듯, 도시 전체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캐나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프랑스풍의 건물 양식을 눈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고 덩달아 사진을 찍는 손도 분주해졌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자 가로등이 하나 둘씩 길을 밝혔다. 불빛이 반짝이는 밤의 퀘벡은 낮의 퀘벡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여행의 화룡점정, 나이아가라 폭포! 전 세계인이 일생동안 꼭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 웅장한 그 크기에 모두가 압도되었다. 맑은 날씨와 우렁차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가슴을 시원하게 뿜어주었다.





12월의 상징,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를 자칭한 해외봉사 3기 금강인들은 함께 모여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선물 꾸러미를 꾸리고 있었다. 과연 그 꾸러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해외봉사 3기, 캄보디아로 간 30명의 산타들

베싸브완 초등학교

: 웃음이 맑은 아이들로 가득 찬.

금강인들이 맡게 된 임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 담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직접 땅을 파 세운 기둥을 기준으로 벽돌을 층층이 쌓아 올렸고, 그것들을 튼튼히 고정시켜 줄 시멘트 작업까지 마쳤다. 또한 달고나 만들기, 티셔츠 천연염료 염색하기, 미술교육을 접목한 위생교육, 연필을 이용한 바람개비 만들기 등 우리 금강인들은 아이들에게 책 속에서 배울 수 없는 생소한 경험들을 체험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보육원 : 보듬어지고 있는 원석들.

보육원에서는 목조작업이 병행되는 만큼 체력과 기술을 겸한 사람들 위주의 노력 봉사팀이 구성되어졌고, 그 외 인원들은 돌아가며 교육 봉사를 진행하였다. 목조작업 후 미리 준비해간 도안을 바탕으로 벽화작업을 시작했다.

플리마켓 :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플리마켓은 우리들이 받은 기부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을 특정 장소에 기부하려는 목적의 봉사 일정이다. 현지 마켓에서의 가두판매를 위한 금강인들의 기부 캠페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

한 퍼포먼스까지 준비를 단단히 했다. 수익금은 기숙사 신설작업이 한창인 보육원으로 전달되었다.

쓰레기마을

: 나눔으로부터 뺏어져 그들에게 달다.

쓰레기마을은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기는 재활용품들을 팔며 생활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로 정식 명칭은 '얼롱빠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급식봉사와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찬스쿨 : 형설지공의 장.

찬스쿨은 호주인 선교사가 지은 학교로, 이곳에서는 영어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1박 2일에 걸쳐 일부교실 벽면의 목조공사와 도서관의 벽화작업, 교육봉사를 병행했다.



따로 또 같이, 네팔에서의 14박 16일

사라사티 초등학교

산 속에 있는 학교여서 약 40분간 산을 오르고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노력봉사는 도서관과 교실의 내벽, 외벽의 창문과 문을 도색하는 일로 진행 되었다. 교육봉사에선 아이들 한 명씩 폴라로이드 사진 이름표 만들기, 팔찌 만들기, 연필을 이용해 만든 바람개비, 빈 병을 이용해 만든 마라카스와 각종 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시간, 율동 시간, 위생교육 등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고아원

봉사단은 두 팀으로 나누어 식사를 준비하는 팀과 아이들과 같이 쇼핑을 하러가는 팀으로 나누었다. 식사를 준비하는 팀은 아이들과 함께 먹을 볶음밥을 준비하였고, 쇼핑을 하는 팀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그들과 함께 구매하는 것이 임무였다.

아동재활원

교육봉사의 경우 앞서 초등학교에서 했던 봉사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했으며 노력봉사의 경우에는 재활원 울타리 담벼락을 미장하고, 페인팅칠을 하게 되었다.



문화 탐방(화장터)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화장터를 견학했다. 강가 옆에서 화장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러 신들을 위한 돌상·탑 등의 건축물을 구경할 수 있었고, 이슬람과 불교 두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도 있었다.

문화 탐방(푼힐트레킹)

푼힐전망대(3,210m)는 히말라야 중부에 있는 연봉인 안나푸르나의 남봉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출이 비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봉사단은 트레킹을 시작하기 위해 네팔 제1의 관광지 포카라에 들린 후 바로 등반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튿날에는 푼힐 전망대 바로 직전의 최종 지역으로 안나푸르나의 높은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고레파니로 향했다. 최종 목적지인 푼힐에서는 구름 때문에 봉우리가 일출에 비치는 최고의 풍경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의 모습은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타멜 지구

타멜 지구는 관광 상품과 먹을거리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자선바자회

자선바자회는 우리 금강대학교에서 받은 기부 물품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공연도 같이 진행되었다. 네팔과 한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된 공연이어서 네팔 측에서 많은 준비해주었기에 풍부한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되었다.



1

지역인재 추천 채용 (6, 7급 공무원) 최다 배출

지방 대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지역인재추천(6,7급) 공무원 채용에 최근까지 충남지역 20여개 대학에서 행정직 및 기술직으로 총 43명이 채용되었으며, 우리대학은 행정직 22명 중 8명이 합격하여 충남지역에서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영광을 안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제는 2013년도 기준 각 지역대학에서 1,000명 이하 3명, 2,000명 이하 4명, 2,000명 이상 5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점수가 토익 700점·토픽스 625점·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G-TELP 65점(Level 2)·FLEX 625점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최근 4년 동안 매해 연속적인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전교생 기숙사 생활로 전임교수와 365일 24시간 맞춤형 밀착지도가 가능한 것과 재학생 및 졸업생과의 1:1 멘토링 지원이 이번 성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 했으며, 2014년 지역인재 추천 채용인원이 1,000명 이하 4명으로 증원 되어 앞으로 더 많은 공직 진출이 기대 된다며 금강대만의 소수정예 특성화 교육시스템을 더욱 발전 시켜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2

2014년도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순항

우리대학은 2014학년도 지역인재추천 7급 선발시험(행정 분야)에 김세연(행정학과4)과 박경현(행정학과4)학우가 최종합격하여 올해에도 연속적인 합격자 배출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선발시험은 100명(행정직 50명, 기술직 50명)모집에 474명(행정직 327명, 기술직 147명)이 응시했고, 전국 대학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중 행정 분야 서류전형 통과자 324명이 필기시험(공직적성검사)을 거쳐 55명(최종선발 50명)이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이 되면 7주간의 직무교육 및 부처 순환근무를 거쳐 각 부처에 배정되며 1년의 수습 근무를 마친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우리대학은 2005년부터 실시한 지역인재추천(6,7급) 공무원 채용에서 작년까지 충남지역 20여개 대학에서 최다인원 배출의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개교 12년차,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지만 연속적인 교육성과가 있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일관적이고 꾸준한 소수정예 특성화 정책 및 우수학생 유치와 교수, 직원, 학생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강대가 명문사학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인재추천 채용제 합격자 배출 현황]

- 2006년 지역인재 채용 중앙6급 공무원 김성희, 통상통역중어
- 2008년 지역인재 채용 중앙6급 공무원 권숙희, 통상통역영어
- 2009년 지역인재 채용 중앙6급 공무원 조수연, 통상통역중어
- 2011년 지역인재 채용 7급 공무원 2명 (강은진: 통상통역영어4, 장재호: 통상통역일어4)
- 2012년 지역인재 채용 7급 1명 (이지형: 통상통역중어4)
- 2013년 지역인재 채용 7급 공무원 2명 (이호진: 통상통역영어4, 박재현: 행정4)



3

2014년 행정고시 1차 시험
합격자 8명!!

우리대학은 지난 3월 8일(토) 치러진 2014년 행정고시 공채 시험에서 재학생 6명, 졸업생 2명 등 총 8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이번 1차 시험 합격자는 명소희(행정학출), 박혜진(행정학4), 윤민경(행정학3), 이상현(행정학3), 이승원(행정학4), 이형준(행정학3), 정우석(행정학4), 최선아(중어통역출) 등 8명이다.

이번 행정고시(일반 행정)시험은 142명을 선발예정으로 1차 시험에 5099명이 응시하여 35.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2차 시험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 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2007년부터 행정고시 1차 합격자로 매해 4~8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이 결과 2008년 황보란(2009, 중어통역출입), 2011년 백승하(2010, 행정학출입), 2012년 송영조(2013, 행정학출입) 등 3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해 올해도 고시 최종 합격자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대학 주경일 행정학과장은 1차 시험 합격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최종 합격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화 도모 등 질적, 양적으로 차별화된 지도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금강대학이 소수정예로 전공주임 교수와 1년 365일 24시간 밀착형 학습지도가 가능한 것이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타대학이 모방할 수 없는 특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

제1회 선도대학 대학총장에
정병조 총장 선정

우리대학교 정병조 총장은 지난 22일(토) 한국대학경영연구소(민간단체)에서 조사한 제1회 '선도대학 대학총장'에 선정 됐다.



'선도대학 대학총장'은 1단계 대학기초역량 평가를 거쳐 상위 50개 대학을 선정, 2단계 재정건전성 평가, 마지막으로 상위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총장 리더십 평판도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대학기초역량 평가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대학평가 결과를 활용했고, '지속경영 가능대학'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평가는 기금적립금(전년대비 기금적립금 증가비율과 누계)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을 따졌다. 3단계 정성평가에선 대학경영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2단계 정량 평가를 거쳐 선정한 상위 10개 대학의 총장 평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영 전문가들은 “금강대가 소수정예 교육으로 ‘작지만 강한대학’의 위상과 더구나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문학 특성화’를 내세워 타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제시, 대학경영 및 학문연구의 조화,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 개교 12년차 대학의 놀라운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5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지원
사업(상반기)에 4명 선정

우리대학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지원 사업(상반기)에 본교 교수 1명과 연구교수 등 3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인문사회 분야에서 전문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된 2014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장민호 교수(글로벌인재학부 영어통번역학과) “IFRS채택이 회계정보 가독성에 미친 영향”은 2016년 4월까지 2년 동안 총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에는 각각 강명희 연구교수 “자연을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구”(아로야식과 기세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와 김진숙 연구교수 “동아시아 불상조상기를 통해 본 정토신앙의 수용과 전개”가 2017년 6월까지 3년 동안 각기 총 1억 2,000만원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강형철 “불교 철학의 철학적 발전과정 연구”는 2016년 6월까지 2년 동안 총 6,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은 인문한국(HK)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인문사회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간 저술출판지원사업(최기표 교수, 박영길 연구원) 2건, 명저번역지원사업(박영길 연구원), 신진연구지원사업(하상근 교수)등에도 선정될 만큼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김세연·박경현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합격



우리대학교의 김세연(행정학전공 졸업)과 박경현(행정학과, 4학년) 학생이 행정안전부 시행 2014년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선발시험(행정 분야)에 최종합격 하였다. 이번 행정 분야 선발시험에서는 전국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474명 중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을 거쳐 최종 100명이 합격하였는데, 충남지역의 최종합격자는 총 7명 중 2명이 금강대학교 학생으로 소수정예교육을 추구하는 우리대학교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제는 각 지역대학에서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과 성적 상위 10%이내, 영어점수가 토익 700점, 토플 625점,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G-TELP 65점(Level 2), FLEX 625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 남이현

공무원과 공단 모두 합격



우리대학교의 남이현(사회복지학전공 졸업)이 안전행정부 시행 9급 공무원 공채(국가직)와 건강보험공단 요양직에 모두 합격했다. 남이현 학우는 이번 시험에서 393.3 :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94명을 뽑는 건강보험공단에도 합격하였다. 이번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행정직은 총 2793명을 선발하였으며, 기술직은 207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신규 채용으로 행정직 88명과 건강직 46명, 전산직에 12명을 선발하였다. 공무원과 공단에 모두 합격한 남이현은 현재 공무원으로 일할 것을 택하여 동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남이현 졸업생은 "공단의 합격은 공무원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위해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과목의 기본기부터 심화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공단의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학생으로써 봉사활동이나 관련 대외활동, 자격증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저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며 후배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단 생각만 가지고 앞만 보고 하십시오! 절실하다면 그만큼의 보람이 찾아옵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 박익후

중국정부초청장학금 유학생 선발



우리 대학교의 박익후(통상통역중어전공 졸업)가 중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뽑혔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중국정부초청장학생은 한국과 중국 교육부 간에 체결한 「한·중 교육교류약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가 우수한 인재를 초청하여 대학원 과정의 수학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장학생 선발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진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지원서, 학업계획서,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교수 추천서, 중국어 자격증, 영어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매년 20여 명의 석박사 장학생을 선발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장학생 선발을 마친 후, 중국정부에서 중국의 각 학교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진학할 최종 학교를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서에 3지망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기재할 수 있다. 박익후 졸업생은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 후배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은 비단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통상통역(중어)학과와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기쁨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배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여러 취미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들을 접해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멀티미디어실에서 영화 관람도 하고, 강당의 피아노도 쳐보고, 근처 신원사로의 산책도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미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20대 초중반의 빛나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주인원

일본어 교육 박사학위 취득



우리대학교 주인원(통상통역일어전공 졸업)이 지난 3월 히로시마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08년

주인원 졸업생은 우리대학 해외 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4호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원을 받은 바가 있다.

주인원 졸업생이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히로시마 대학은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다. 여러 학부 중에서도 교육학부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우수성이 있는 학교이다. 일본어 교육 부분에서도 종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배치되어 있어 학·석·박사 전 과정에 내·외국인 모두 0순위로 입학할 희망하고 있는 학교이다.

주인원 졸업생은 "사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앞일을 위한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잖아요.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쓸모 있게 사용해야겠죠. 전문 일본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연구자로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것.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길을 열어 가야할 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후배들에게 "금강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와 4년간의 커리큘럼만으로도 충분히 일본의 대학원 진학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일본어를 시작하는 후배님들도 앞으로의 4년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고 목표를 향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임대홍

삼성 호텔신라 입사



우리대학교의 임대홍(통상통역중어전공

졸업)이 삼성 호텔신라에 입사했다. 호텔신라의 마케팅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대홍 졸업생은 SSAT를 통하여 삼성 호텔 신라에 입사했다. SSAT는 삼성 고유의 인적성 시험으로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공간 지각적 사고, 직무상식 이렇게 총 다섯 과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호텔신라에 입사하기 위한 평균 토익점수는 900점 초중반이고 지원 자격으로는 OPIC IH 이상, 토익 스피킹 7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을 할 수 있다. 한자2급, 신HSK5급 이상은 가산점이 있다.

임대홍 졸업생은 후배들에게 "사회생활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금강대 학생들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 얻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들은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선기

금융을 넘어 (주)루트제이드 해외영업업무까지



우리대학교의 김선기(통상통역일어전공

졸업)이 (주)루트제이드 해외영업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김선기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는 (주)루트제이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초소형 코인형 리튬이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주 담당 지역이 중화권과 일본인 회사이다. 앞서 금융권에서 일한 바 있는 김선기 졸업생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사무만 보는 일에 약간은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활동적이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보고자 싶어 전직한 것이 해외영업이었습니다."라며 분야를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 말했다. 또한 "해외영업직은 참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직무라 생각합니다. 일반 영업직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위해 전략이 세워지고 실행을 하나씩 해나가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이것을 또 외국어로 해야 하니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많은 것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라고 전했다.

학술 교류



ACADEMIC
EXCHANGE

파키스탄 콰이드이아잠(Quaid-i-Azam)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우리대학교는 2월13일(목) 파키스탄에 방문하여 콰이드이아잠(Quaid-i-Azam)대학, 불교문화연구소는 탁실라 아시아문명연구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불교학 연구 및 아시아 문화교류사측에서의 연구 및 교육역량 증대, 대학 및 대학원생의 교류, 간다라 지역 연구의 공동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Quaid-i-Azam 대학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의 대학으로 파키스탄 명문대 중 하나이며, 동서문화교류의 중심지였던 간다라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문화 교류 및 아시아 문명 연구에 특징점을 보이는 대학이다. 또한 탁실라박물관 내의 유물은 파키스탄 내에서도 라호르박물관, 페샤와르박물관과 더불어 한 축을 이루는 간다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대학 관계자는 "불교 유적지 및 고고학적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탁실라 아시아문명연구소와의 협정은 관련지역 연구가 미비한 국내 학술계에 새로운 학술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문한국 HK사업의 아젠다에 맞춘 연구성과물 출간에 큰 도움을 줄것이라 했으며, 더불어 우리대학 출신 학생들이 새로운 연구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라 전했다.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 보이시 대학 교류협약 체결 순항

우리대학은 지난해 9월 학술교류협정 체결 후속으로 2월 20일 루이지애나 총장 일행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3월 17일 보이시주립대학 부총장 일행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교류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번 협정은 루이지애나 대학 Dr. Nick Bruno 총장, Dr. Eric Pani 교무부총장, 교육&과학부 Dr. Michael Camille 학과장, 교육&과학부 김기오 교수와 보이시주립대학 Dr. Martin Shimpf 부총장, 교육공학과 Dr. Brett Shelton 학과장, 문학과 Dr. Stan Steiner 학과장, 교육공학과 Dr. Young-kyun Baek 교수등이 내방하여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명분보다는 학생들과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양적이나 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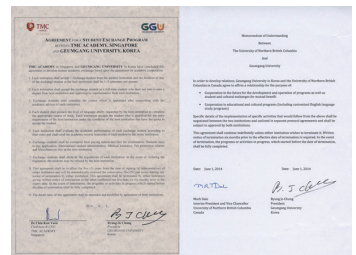
캐나다 UNBC, 싱가포르 TMC Academ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우리대학은 지난 6월 1일(일) 영어권 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캐나다 UNBC(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와 싱가포르 TMC Academy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 △교육적, 문화적 프로그램의 협력(영어 어학연수 맞춤 프로그램 제공) △기타 상호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다.

우리대학은 소수정예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현재 해외 9개국 34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인적교류 및 학점교환, 복수학위제, 학술교류, 공동협력사업등을 추진 하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이번 협정을 맺은 영어권의 두 대학은 원어민과의 생활 빈도가 높다는 점과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가속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금강대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논산시 청소년 FunFun 영어캠프 개최

우리대학은 여름방학을 맞아 2014 논산시청·논산시청소년수련관·논산계룡교육지원청·금강대학교가 함께하는 논산시 청소년 'FunFun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8월11일(월) ~ 8월15일(금) 4박 5일간 관내 45명,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와 우리대학 재학생들의 강의·보충 지도로 다양한 상황별 생활 영어를 익혔다. 또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반 정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하고, 반마다 외국인 강사 1명과 보조강사 3명을 배치하였다.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지역대학의 우수한 환경 속에서 사설 학원이나 해외로 나가지 않고 원어민과 즐거운 영어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물론 독립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



CAMP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서울투어문화체험 & 진로캠프 개최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익산지역 중학교와 함께하는 서울투어문화체험&진로캠프를 1월15일(수)~16(목) 1박 2일간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익산지역 이리북중, 원광여중, 남성중, 이리남성여중 4개의 중학교 총 60여명의 학생이 참가를 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서울투어문화체험으로 "서울대학교, 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 63빌딩방문", 진로캠프로는 "나의 비전 로드맵 만들기, 나의 진로계획 발표"이며, 끝으로 금강대와 교류협약을 맺고 있는 육군항공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 안보특강 및 항공기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우리대학 평생교육원 이원식 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테마가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또래관계 관계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시 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소식



NEWS

금강대 졸업생 국·내외 명문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

우리대학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글로벌인재양성의 기치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 박익후 학생의 중국정부초청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이어, 2011년 졸업생인 박소옥(통상통역영어 2006)씨가 2013년 충남도비 해외유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3월14일 뉴욕대학교 박물관 학 석사과정에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2007년 졸업한 주인원(일어통역 2003)씨는 금강대 해외대학원 학비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석사과정을 마치고, 최근 히로시마대학 대학원(일어교육 전공)내 장학 지원 프로그램 선발, 미쓰비시 기업 장학금, 로터리클럽 유학생 장학금등을 연속으로 지원받아 3월 25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소옥 졸업생



주인원 졸업생

박소옥씨가 받은 충남도비 해외유학장학생은 충남에 연고가 있는 전국 대학생을 선발해 해외 대학 석사과정 2년 동안의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인원씨는 우수졸업생 해외대학원 학비 지원 장학생으로 석사과정 동안 2년간 21,000\$의 장학금을 받았다.

우리대학의 해외 대학원 학비지원은 세계유명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자로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50이상이면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2년동안 영어권28,000\$, 일어권20,000\$, 중어권14,000\$을 각각 지급한다.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학부생 및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비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이 국·내외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고 있고, 개교 12년 동안 소수정예 특성화 교육이 국비장학생, 중국정부우수 및 초청장학생, 일본문부성 장학생 등 우수한 교육성과를 내고 있다고, 글로벌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강대 총학생회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추모제 열어



우리대학은 지난 5월 8일(목) 금강대 일원에서 총학생회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이번 추모제는 총학생회에서 5월 15일(목) 있을 축제를 취소하고, 대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자는 모든 학생의 의견을 모아 준비했으며, 1부 추모사 낭독 및 촛불 추모 이동, 2부 국제선원 대불보전 천도제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천도제는 금강대 법인사무처 서용승님, 통영 서광사 동문 주지스님, 전주 만월사 회명 주지스님 외 거사 3명이 진행을 맡아 주셨으며, 참가한 150여명의 학생 일일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주를 올리고 추념하였다. 추모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떠나간 이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금강대 교육방송국(GBS) 환경UCC공모전 대상 수상

우리대학 신문방송사의 일원으로 활동 중인 교육방송국(GBS)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주최한 '제7회 즐거운 환경UCC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과 환경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금강대 교육방송국은 개교 이래 해마다 방송제를 통해 학교 캠페인 동영상 및 CF 등 학교 주변의 모든 소재를 주제로 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흥미와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여 입상하는 등 금강대 홍보 및 학생들의 친목 도모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위해 교육방송국 학생들은 3명씩 두 팀으로 구성, 2개 작품의 출품을 목표로 매일 저녁 6명이 함께 1~2시간의 아이디어 회의와 더불어 주말에는 캠퍼스를 떠나 대전 근교에서 야외촬영을 하는 등 영상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상을 수상한 '피리 부는 소년' 팀은 영상에 사용된 노래(피리 부는 소년)의 저작권 문제로 공모를 포기해야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저작권자의 도움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팀 이름을 '피리 부는 소년'으로 지었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교육방송국장(배유리)은 이번 수상을 통해 수상한 학생들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함께 도움을 준 교육방송국(GBS) 구성원과 마지막까지 응원해 준 금강대 교직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보조 총장 선도대학 대학총장 우수사례 발표



우리대학 정보조 총장은 지난 9월20일(토) 세종대학교 대강당에서 한국대학경영연구소가 주최한 '대학경영 혁신의 길'이라는 세미나에 초청되어 대학 교수 및 관계자, 관련 경영담당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금강대의 대학경영 특성화 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한국대학경영연구소가 조사한 제1회 선도대학 대학총장에 금강대 총장이 선정된 바, 최고경영자로서 대학발전모델에 어떤 실천적인 대안과 과제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강에서 정보조 총장은 국내 대학의 위기는 양적 팽창에 치중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교수들도 고전적인 교수의 모습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수요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이날 특강이 끝난 후 한국대학경영연구소로부터 소정의 발전기금 50만원을 총장 특강비 명목으로 건네 받았으며, 정보조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곳에 쓰겠다 답례를 했다.

우리대학은 국내 290여개 대학 중 3~4개 뿐인 불교종립대학의 하나로 개교 12년차 4년제 종합대학이다. 충남 논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고급 공무원 양성 및 외국어특화 교육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성화 정책으로 한해 140명 우수신입생을 선발해 전원등록금면제, 전교생기숙사생활, 외국어집중교육, 해외명문대학원 학비지원등 파격적인 장학제도로 수험생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대,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행복 공감아카데미 개최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충남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된 논산노성중학교(교장 윤용복)의 1,2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금강대와 함께하는 2013학년도 행복공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우리대학 캠퍼스에서 진행하며, 2014년 1월6일(월)부터 17일(금) 까지 1일 4시간씩 10일간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진행하는 영어 및 수학 멘토링과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스마트폰 다스리기, 과학마술, 명상요가 따라하기, 영화 & 그림 읽기

와 논술, NSMS(노성중학교)연구소, 진로직업창업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된다.

또한 이번 멘토링에 참가한 금강대 학생들은 총 9명으로 1:5 멘토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지역사회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의 명문사학과 중학교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참멋진인재"로서의 도약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 금강인을 위한 전공비전 및 진로 설명회 개최



우리대학교는 지난 1월 11일(토) 2014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120여명 대상으로 대전 유성호텔 3층 연회장에서 예비금강인을 위한 전공 비전 및 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금강인에게 우리대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학과별 교수님들과 입학전 1:1 면담을 통한 전공별 비전 및 진로, 캠퍼스 생활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참가하여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금강대 교육시스템에 대해 홈페이지 및 홍보물등을 통해 어느정도 인지는 하였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며, 합격을 하게 되면 꼭 등록을 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불교문화연구소 제6회 산스크리트어 강좌 성황리 종료



우리대학은 2014년 2월 10일(월)부터 2014년 2월 21일(금)까지 2주 동안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산스크리트어 무료 전문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강좌에 참가한 인원은 총 27명으로 이중 초급 24명, 중급 14명, 고급 8명 등 모든 강좌를 접할 수 있게 중복 강좌를 허용하여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산스크리트어 강좌에 수강한 인경스

님은 어렵게 생각했던 산스크리트어를 쉽고 재미있게 더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정병조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강좌 개선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진로 지도 프로젝트 순항

우리대학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글로벌 무역 인턴십 프로그램에 재학생들이 매해 선발 되고 있다. 이는 우리대학에서 진행 중인 특성화 사업의 일환인 “맞춤식 취업/진로 지도”프로젝트의 성과이다. 이번 11기는 40명 선발 중 전국 1,224명의 대학생 및 졸업생이 지원해 30:1의 경

쟁률을 보였으며, 2월28일(금) 해외 발대식을 가졌다. 우리대학은 강은지(통상통역학, 영어4) 학생이 선발되어 LG 스웨덴 현지법인에 파견해 근무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권소희(통상통역학, 일어졸), 윤정원(통상통역학, 일어졸), 김진옥(통상통역학, 중어졸), 오아름(통상통역학, 영어졸)학생이 이 과정에 선발되어 무역협회에서 해외인턴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한편 제30기 무역마스터 과정에서도 우리대학 재학생인 황신(통상통역학, 일어4) 학생

이 선발되어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대학 서문성 교수(국제통상학과장)는 “소수정예를 위한 전공특성화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진로 지도가 기업체 및 대학원에서 우수한 인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통상학과에 편제된 일부 교과과정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및 전담 지도교수와 연계 교육, 전공특성화교육 등이 교육성과에 기여 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중국 섬서사범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우리대학의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사업단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와 3월 21일(금)~22일(토) 양일간 섬서사범대 옌타(雁塔)캠퍼스에서 종교와 역사의 교차점,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양대학 교류협정시 섬서사범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

자는 협의사항 진행이며, 실크로드와 함께 서역지방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불교의 수용과 변용의 단초 등 많은 연구영역과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교류이다. 또한 섬서사범대의 서북민족연구센터는 중국 서북 지역, 흔히 우리가 실크로드나 비단길 혹은 서역(西域)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역사와 종교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연구를 대표하는 중국 국책연구소이다.

발표는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불교를 주제로 정병조 총장이 기조발제하여, 허남결 교수(동국대), 황순일 교수(동국대), 윤선태 교수(동국대), 정광훈 교수(고려대), 석길암 HK교수(금강대), 최은영 HK교수(금강대), 한지연 HK교수(금강대) 김성순 HK연구교수(금강대), 왕쑤 교수(섬서사대), 왕초 연구원(섬서사대 서민연), 한상 부연구원(섬서사대 서민연), 방철 교수(운남대), 리따롱 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우홍린 부연구원(섬서

사대 서민연), 양동위 박사(섬서사범대 서민연), 라군 교수(운남대)등 20여 명의 석학들과 관계자 40여 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이 발표되었다.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불교를 탐구하는 여정은 동아시아 불교 내부에서만만이 아니라, 그 동아시아 불교를 낳은 산통의 공간인 실크로드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실크로드 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학술대회 결과물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특집호에 실릴 예정이며, 연구소 내부에서는 학술대회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성(佛性)은 영성(靈性)인가? 공동학술대회 개최



불교문화연구소와 인도철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주제: "불성(佛性)은 영성(靈性)인가?" —

우리대학은 지난 3월 28일(금) 13:00~18:00 불교문화연구소와 인도철학회가 본관 5층 사이버강의실에서 "불성(佛性)은 영성(靈性)인가?"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 ▶마츠모토 시로 松本 史朗(고마자와 대학) : 불성과 영성 ▶황용식(원광대) : 불성-영성 논의의 다면적 함의와 과제, 제2부에서 ▶이태승(위덕대) : 후기 중관사상에서 본 불성과 영성, ▶류제동(성공회대) : 여래장 사상의

영성적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원효의 기신론 해석을 중심으로), ▶하유진(금강대) : 불성과 영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생의 일체제성불설의 경우)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25년 전통의 인도 전문학회인 인도철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금강대학교의 위상과 불교문화연구소의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층재 건설청장 초청 특강



우리대학은 지난 5월 12일(월) 본관 대강당에서 금강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층재 건설청장을 초청하여 '행복한 도시 세종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이청장은 행복도시의 트랜드, 중부권 거대 도시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와의 상생 네트워크 등 행복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다.

특강에 참석한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은 이청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최근 금강대 학생의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교육성과를

소개하고, 이러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이에 화답으로 이청장은 잘 갖추어진 도시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달라며, 금강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행복도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정상교 졸업생 소설보다 재미있는 '도교대학 불교학과' 서적 출간



우리대학의 제2회 졸업생 정상교(불교학전공)씨가 최근 '도교대학 불교학과'라는 제목으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

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였다. 정상교씨는 2008년 졸업 시 학업성적이 우수해 우리대학 해외명문대학원 진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도교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후 도교대학 대학원에서 연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는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이러한 정상교씨의 책을 소개하자면 불교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의 주요 흐름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소설 같이 썼고, 공간적 배경을 학부시절 우리 대학교 일원으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책 내용에 우리대학 캠퍼스에서의 에피소드와 불교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다.

또한 정상교씨가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불교를 좁게만 보고 단면만을 알고 있어 특정 이미지로 박제화 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불교라면 전부 산속에서 배운다 생각하는 선입견 등을 예시를 들어 독자들에게 참된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전했다.

정상교 졸업생은 학부과정 4년, 석사과정 2년 등 현재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지원을 해준 우리대학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스토리텔링의 주무대를 우리대학 일원으로 했으며 앞으로도 인생의 보탬이 되어준 우리대학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불교문화연구소 제19회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회 개최

우리대학(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단은 9월 19일(금) 일본 교토불교대 오노다 준조(小野田俊藏)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대학 사이버강의실에서 제19회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오노다 준조교수는 일본의 신진 티벳·몽

골 불교학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강연회에서 티벳어 특유의 정서법과 생략어(뒤치 bsdus tshig), 그리고 축약된 속기용 문자(공익 skung yig)를 해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티벳어 고사본 문자의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대장경 판본 간에 발생하는 이독(異讀)은 축약된 속기용 문자(공익 skung yig)를 원래의 정자법으로 되돌려서 쓰려고 할

때 빚어지게 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불교문화연구소 권탄준 소장은 티벳불교 관련 고사본은 해독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서체가 존재한다며, 이번 강연회를 통해 티벳어와 티벳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속의 한국문화 주제로 금강아카데미 개최



우리대학은 6월 9일(월) 본관 대강당에서 중강법회 및 금강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채희석 변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채희석 변호사는 한국의 뛰어난 문화유산인 성덕대왕신종, 한글 등 13개의 문화재와 반도체, 조선 등 11개의 한국이 지닌 강점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세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우리는 이러한 점에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채희석 변호사는 2002년 사법고시를 통과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소속으로 외국에 한국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제3회 한·중·일 3국 공동 불교학술대회 개최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소는 6월 21일(토)~22일(일) 2일간 한국의 금강대, 일본의 동양대, 중국의 인민대 3국이 일본 동양대학에 모여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의 대립·논쟁과 그 의의'라는 주제로 3국 공동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대학과 동양대, 인민대는 2012년 6월 우리대학에서 제1회 학술대회, 2013년 6월 중국 인민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은 중국 인민대학 양해림 부총장의 '아베 마사오(阿部正雄)의 종교 대화 이론에 대하여'이며, 우리대학 정병조 총장과 동양대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은 축사를 한다. 또한 3국 대학 총장은 이러한 학술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시대의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담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술대회 주요 내용으로 한국 측에서는 금강대 한지연 HK교수가 '서역에서 소

승교단과 대승교단은 대립했는가, 하야시 카나 HK교수가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의 대립', 장규언 HK연구교수가 '中觀과 唯識의 관계에 대한 圓測 인식의 특징'을 발표하며, 일반연구원 최연석(동국대 교수)가 논평자로, 최은영 HK교수는 사회자로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인민대학 쉬옌팡(宣方)교수가 '인순과 여정의 '아비담심론' 의견에 대한 검토', 장원량(張文良)교수가 '澄觀의 慧苑 批判과 華嚴宗 祖統說', 장평레이(張風雷)교수가 '但中'과 '圓中'을 발표하며, 장쉬예송(張雪松)교수와 陳繼東(靑山大學 교수)가 논평으로 참여한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무라 마코토(吉村誠駒澤大學教授) '중국 화엄사상에 있어서의 유식사상의 해석', 마쓰모리 히데유키(松森秀幸 創価大學助教) '당대 천태종에 있어서의 돈점(頓漸)을 둘러싼 논쟁' 나가무라 레이타(中村玲太 東洋大學大学院) '겐이(顯意)의 원호 비판에 보는 일종 정도교의 상위' 사토 아츠시(佐藤淳 東洋大學講師)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의 기독교 비판—근대 일본의 불교·기독교의 논쟁에 있

어서의 위치 부여-'를 발표하고, 기쓰카와 토모아키(橘川智昭 東洋大學講師), 호시노 세이지(星野靖二 国学院大学准教授), 가케하시 노부아키(梯信晃 大阪大谷大学教授), 마부치 마사야(馬淵昌也 学習院大学教授), 간노 히로시(菅野博史)가 논평자로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성과물은 2015년 5월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제4회 한·중·일 공동 불교학술대회는 우리대학에서 2015년 6월 19~20일에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대승기신론관'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금강대학교는 미래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식을 효율적으로 창조해 내어 [세계일류의 소수정예 교육 전당]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금강대학교가 앞서 달릴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주십시오.

| 기부자 혜택 |

- 개인 기부의 경우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전액 공제됩니다.
- 법인 기부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 기부 시 기부금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 개시 6개월 이내)됩니다.

| 기부자 예우 |

- 각종 소식지 정기 발송
- 고액 기부자는 본인 명의로 된 장학금 지급
- 기금모금 기념 동판에 기부자 기재
- 금강대 연례보고서에 기부자의 성함 기재
- 금강대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영어캠프, 템플스테이 등 유료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시 우대 등의 혜택 제공

| 발전기금의 종류 |

- 기부자께서 장학금, 건축비 등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발전기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발전기금'이 있습니다.

| 발전기금의 기부 방법 |

-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ggu.ac.kr>)에서 약정서를 다운받은 후 내용을 기재하여 팩스(041-731-3024), 이메일(ggufund@ggu.ac.kr) 또는 우편(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기획관리처)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입금은 매월 자동이체 (예금주 : 금강대학교, 농협 301-0082-0692-91 / 기업 238-037417-01-024 / 국민 453201-04-437209) 또는 CMS 출금 이체, 방문 납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14. 01 01 ~ 2014. 08. 28

김광옥	학부모	180,000
강가희	동문	50,000
강경동	신도	240,000
강동수	신도	400,000
강지은	신도	80,000
고정민	일반	80,000
고희정	신도	70,000
권영남	신도	80,000
김강미	신도	160,000
김경숙	신도	80,000
김근봉	일반	80,000
김복순	신도	80,000
김상근	신도	80,000
김승나	신도	80,000
김영관	신도	80,000
김영택	일반	80,000
김윤진	신도	80,000
김은경	신도	80,000
김일생	신도	80,000
김채현	신도	80,000
김풍기	종단	250,000
김학준	학부모	700,000
김한률	일반	140,000
김현아	동문	80,000
노지은	동문	70,000
류승동	일반	80,000
류필자	신도	80,000
류호일	신도	80,000
박두연	신도	80,000
박묵례	신도	50,000
박미옥	신도	400,000
박미정	신도	80,000
박춘화	신도	400,000
박희경	신도	80,000
배정윤	신도	80,000
배종국	일반	80,000
백승오	일반	80,000
변옥자	신도	70,000
서세환	동문	60,000
손도익	신도	80,000
송금수	신도	80,000
송예진	동문	80,000
송이숙	일반	80,000
송창익	일반	800,000
신면식	신도	80,000
신보규	신도	160,000
신복애	신도	80,000
신상철	학부모	800,000
신효정	동문	10,000
안갑성	신도	160,000

안갑성	신도	240,000
안영환	신도	80,000
안치원	신도	80,000
오대성	신도	70,000
오승규	신도	70,000
우숙자	신도	90,000
유경례	신도	80,000
이강환	신도	400,000
이덕수	신도	80,000
이명희	일반	10,000
이수민	일반	240,000
이영훈	신도	60,000
이재욱	신도	40,000
이정훈	신도	80,000
이종학	신도	80,000
임낙홍	일반	60,000
장현주	학부모	160,000
전성원	신도	160,000
전순녀	일반	100,000
전정순	종단	80,000
정성길	신도	80,000
정성수	신도	80,000
정성우	동문	400,000
정재형	신도	80,000
정한누리	동문	50,000
정황훈	신도	80,000
조순환	신도	70,000
조화월	종단	80,000
(주)해마	기업	400,000
주화중	종단	400,000
최모자	신도	140,000
최선화	신도	80,000
최성실	신도	400,000
최영선	일반	40,000
최은정	신도	80,000
최정실	일반	80,000
최정자	신도	80,000
최창순	일반	160,000
추성희	신도	80,000
하옥순	신도	20,000
한순영	신도	60,000
한정명	신도	70,000
한혜정	일반	160,000
허정심	신도	80,000
현주억	일반	240,000
정병조	총장	2,300,000
가인숙	직원	270,000
강재원	직원	180,000
고수현	교수	450,000
권성희	직원	20,000

권탄준	교수	1,600,000
김근석	직원	180,000
김동현	직원	180,000
김창남	교수	450,000
라인정	교수	450,000
민병수	직원	160,000
민주영	직원	180,000
박경래	직원	270,000
박광수	직원	170,000
박수인	직원	270,000
박연석	직원	270,000
박우자	직원	180,000
박중세	직원	180,000
박찬기	직원	430,000
박창환	교수	450,000
박태안	직원	180,000
박혁하	직원	270,000
박훈성	직원	270,000
배상호	직원	180,000
서문성	교수	720,000
석길암	교수	450,000
송현중	직원	180,000
유휘중	직원	180,000
윤상원	직원	180,000
이근원	직원	180,000
이기현	직원	180,000
이영재	직원	180,000
이영진	교수	270,000
이운영	교수	450,000
이원식	교수	450,000
이해영	직원	100,000
장형사	직원	450,000
전종두	직원	180,000
정명호	직원	180,000
정미애	교수	450,000
정이용	직원	180,000
조성환	교수	1,800,000
조영희	교수	450,000
주경일	교수	450,000
차상엽	교수	270,000
최기표	교수	340,000
최병학	교수	450,000
최원길	직원	180,000
최은영	교수	450,000
최종석	교수	450,000
하응천	교수	450,000
한지연	교수	450,000
허명순	직원	180,000
홍성도	직원	180,000
합계		33,920,000

GGU 금강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 적 사 항	성명(기관명)			구 분	☐ 학부모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동 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 교직원 ☐ 기업체
	학 적 사 항	학부(과)		년 입학(성명:)		
	※동문에 한함		※학부모일 경우 재학생 학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자택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 장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 위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직장					
약 정 정 보	정 액 기 부	일금		원정 (₩)		
		☐ 일시납	년	월	일	
		☐ 분할납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분납	
	만만한 기부	☐ 1구좌 ☐ 3구좌 ☐ 5구좌 ☐ 기타()구좌			농협 301-0082-0692-91 기업 238-037417-01-024 국민 453201-04-437209	
		※ 만만한 기부는 매월 정기기부 프로그램으로 1구좌 1만원입니다.				
		무통장 입금 자동 이체	년 월부터 매월 자동이체			
		CMS 출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약정기한	☐ 3년 ☐ 무기한		이체일	☐ 10일 ☐ 25일 ☐ 말일	
			※ 기본 약정기간은 3년이며,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됩니다.			
기부형태	☐ 현금 ☐ 증권 ☐ 부동산 ☐ 현물 ☐ 기타()					
기부분야	☐ 대학위임 ☐ 장학금 ☐ 건축/시설 ☐ 학술연구 ☐ 불교문화연구소 ☐ 학과지정발전기금(학과명:) ☐ 기타()					
☐ 정보 동의	금강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를 위한 예우 사업에 상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금강대학교 발전기금 구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인)



소수정예교육

금강대학교 발전기금
GEUMGANG UNIVERSITY FOUNDATION

320-931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기획조정팀
Tel. 041-731-3024 Fax. 041-731-3048 E-mail. ggufund@ggu.ac.kr

1만 원 씩 자동이체로 가득 차는 즐거움!

금강대학교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 만만(萬萬)한 기부로, 만만(滿滿)한 즐거움을

금강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가 금강대학교를 세계 초일류 대학의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매월 1만 원 씩 기부만으로도, 금강대학교는 미래의 세계 주역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은행 자동이체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 신청

농협 301-0082-0692-91 / 기업 238-097417-01-024 / 국민 453201-04-437209 (예금주: 금강대학교)

CMS 출금이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매월 일정액의 약정기부금 자동이체

문의전화 041)731-3024



금강대학교 발전·홍보위원을 모십니다.

금강대학교 발전·홍보위원 활동

발전기금 유치 & 금강대학교 홍보활동

지원하기

지원자격 금강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에 일조하고 싶은 모든 분

지원방법 지원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주세요.

FAX : 041) 731- 3048 E-mail : ggufund@ggu.ac.kr

주소 : 302-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기획관리처

지원서양식 다운로드 :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ggu.ac.kr)

문의전화 041)731-3024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기획관리처

3	2	0		9	3	1
---	---	---	--	---	---	---



웹진 소감

이정의 국장

우선, 소식지 발간에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기 중 매달 기사 작성과 더불어 금강 뉴스, 금강매거진에서 소식지까지 모든 것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기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하였기에 언제나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들의 금강대학교 대·내외 크고 작은 추억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끔, 생각날 때마다 꺼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금강웹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시는 교직원분들과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준 웹진 기자들 모두들 정말 수고했고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금강대학교 신문방송사 웹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심우주 기자

어느덧 1년이 훌러 또 다시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엔 처음으로 '매거진'도 만들어보는 등 웹진을 통해 이전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힘든 날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웹진을 하면서 제 대학생활이 더 알차고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소식지가 금강대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정씨, 열심히 따라와 주는 고마운 후배들, 함께하시는 않지만 많이 의지했던 경민 언니, 지훈 선배 모두 감사합니다. 모자란 부분집중이지만 남은 학기 동안 웹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웹진 화이팅!!



이승연 기자

벌써 웹진에서 이학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재미있기도 했었고 조금은 힘들기도 했었지만 웹진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요~ 웹진 정말정말 좋고 진짜 짝인것같아요. 그리고 웹진을 도와주시는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웹진 진짜진짜... 오!!



임재균 기자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웹진이라는 직업에 제법 자부심도 생기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창 바쁜 시간에 소식지 발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신속하고 알찬 정보 전해 드리는 웹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금강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의 꿈이 비로소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발전'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솔아 기자

지난 학기에는 매거진을 발행했는데, 이번학기에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하루하루 금강대학교 웹진으로 활동하면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미처 겪지 못할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기사거리를 생각하고 기사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금씩 배우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웹진으로 활동한지 이제 겨우 8개월,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면서 매달 최선을 다하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식지 만드느라 부원들 모두 고생했고, 앞으로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웹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류현주 기자

신입생으로서 웹진 면접을 보았던 지난 3월을 지나 한 학기를 보내고, 어느덧 계절이 두 차례나 바뀐 10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웹진활동을 하면서 어찌 보면 다소 바쁘고 힘든 시간을 밟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생한 시간만큼이나 즐거웠던 기억과 추억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임원들의 기사와 소식지가 금강대 안의 자랑스러운 보람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웹진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었던 웹진 선배들을 비롯하여 동기들까지 모두모두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금강웹진~!! :-)



윤예리 기자

아직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1학년이지만 학교의 소식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웹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때론 과제처럼 느껴져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학우부들이 잘보고 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이런 웹진 활동을 벌써 8개월째 하고 있는 저는 이번 2014소식지 준비를 하면서 더욱 보람찼습니다. 학교의 1년을 되돌아보고 학우들에게 재밌고 유익하게 알리기 위해 웹진 선배들, 친구들과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웹진에 임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한나 기자

벌써 수습기자로 활동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웹진을 하면서 1학기 내내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내니 굉장히 보람합니다. 화목한 분위기의 웹진 선배님들도 힘들었을 텐데 항상 웃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지가 금강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세요~



홍현표 기자

웹진 활동을 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웹진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 쓰는 건 힘들어도 내가 쓴 기사를 학우 분들이 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도 나고 더 잘 쓰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이번 소식지 쓰느라 우리 웹진 선배들 동기들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금강대학교+웹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차별화된 엘리트교육
소수정예교육

금강대학교

GGU

소수정예교육 수능 1~2등급 '소수정예' 엘리트 교육

최고의 장학제도 신입생 및 전교생, 우수졸업생 장학제도

Boarding Campus 100% 기숙사제도

글로벌 인재 양성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캠퍼스의 국제화

전문·공공인재 양성 전문직 및 공공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맞춤식 취업 프로젝트 개인별 맞춤식 취업/진로지도

